한국청소년연구 제17호 1994 여름

청소년 또래문화 조사연구

이 희 연*

Ⅰ. 문제제기
Ⅱ. 청소년또래문화란?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제언

Ⅰ. 문제제기

요즘 청소년을 신세대, X세대, Z세대 운운하면서 그들의 문화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 우려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과거 비행청소년에 대한 관심 일변도에서 벗어나 일반 청소년과 그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여준다는 의미에서 다소 고무적이다. 그동안 청소년연구가 대개 청소년 비행집단이나 비행문화에 촛점을 두고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청소년'하면 '문제'라고 하는 도식이 형성되어 왔는데, 청소년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행·문제 청소년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일반청소년에 대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기에는 가족관계에서 벗어나 또래집단에 참여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며, 아동기에 비해 또래집단과의 관계는 더욱 집중적이고 광범위해진다. 청소년들은 부모보다 많은 시간을 친구와 보내고, 친구에게 더욱 동조하며, 친구와의 관계에서 많은 사회적 능력이 배양되고 동시에 심리적 지지를 얻으며(Lloyd, 1985; Brown, Eicher & Petrie, 1986; Ginsberg, Gottman & Parker, 1986) 걱정과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교사나 가족보다는 친구와 의논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청소년의 또래집단은 청소년세계의 공통적인 경험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주고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적절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사고체계를 결정해 주기도 하며(Bettie B. Youngs, 1994) 사회적 기술과 전략을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으로서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남승희 편역, 1993). 그리고 또한 청소년들은 서로 비슷한 또래이며 동료이기 때문에 평등하고 정서적 평정과 안정감을 갖게 하며 서로 우정과 사랑을 나누고 동료가 겪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며 함께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어른들이 청소년 또래집단을 보는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학부모

* 서울YMCA 청소년쉼터 실무자

들은 청소년 또래집단을 경쟁의 대상이나 비행의 온상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청소년또래문화에 대한 이해도 척박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교사들도 청소년 또래집단의 형성과 그 활동에 대한 어떠한 교육적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속한 청소년또래집단과 그 문화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청소년들은 또래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행동하면서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또래문화를 형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또래문화는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또래문화라고 생각되어지는 청소년의 친구망, 청소년들의 친구집단의 특성, 친구관계의 질적·양적 내용, 이성친구관계, 또래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또래문화가 성별, 학교성적별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교차분석을 통해 그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보다 다각적 측면에서 청소년 또래문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 또래문화를 통해 청소년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며 건강하고 바람직한 청소년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제공하고자 한다.

II. 청소년 또래문화란?

청소년문화란 청소년집단이 공유하는 특징적인 행동방식의 총체로 간주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이 또래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새롭게 만들고 습득하며 그것의 가치를 나름대로 정당화하는 모든 행동양식을 또래문화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자유시간의 대부분을 또래친구들과 보내며 그들의 공통의 관심사나 흥미, 애정과 사고를 함께 나누고, 일상생활과 활동에서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또래문화를 형성해 나간다. 따라서 청소년 또래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청소년또래집단이란 무엇이며, 그리고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청소년 또래집단이란?

또래 *peer* 집단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 또래집단은 비슷한 연령대의 매우 친한 친구들의 소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둘째, 반드시 친구는 아니더라도 연령이 비슷한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기도 하고 셋째, 특정한 장소에서 동일한 행동을 함께 하는 비교적 낯선 사람들의 집단으로 보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첫째와 둘째의 의미로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청소년기에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소집단이나 또래집단의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는데, 또래집단은 그 구성원에게 고유한 안정감과 지지를 부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불확실한 자아의식에 편안함을 주며 또한 또래집단내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행동규범과 가치를 발달시킨다. 십대의 청소년들의 삶에 있어서 또래집단은 지속적으로 도움을 준다기 보다는 역동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청소년 또래집단의 기능(정재걸, 1992)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청소년들의 또래집단은 청소년들 개개인을 가족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개체화, 분리화의 과정을 돕는다.

② 또래집단은 사회화의 기능을 한다. 청소년

들의 또래집단은 남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인간관계를 맺어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속에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보기도 하고, 다른 친구의 주장에 굴복하기도 하며, 서로 타협해 나감으로 장차 시민사회의 성원으로서의 자질을 배움으로 사회화의 기능을 담당한다.

③ 또래집단은 유희성의 충족기능을 한다. 청소년 또래집단은 학생들의 삶속에 잠재되어 있는 유희성을 충족시켜 그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어 준다.

④ 또래집단은 정보의 확인기능을 한다. 청소년들이 정보를 얻는 통로는 교사, 부모, 매스컴 등 다양하다. 그러나 학습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한 일체의 정보는 또래집단의 준거를 통해 수용되거나 혹은 배제된다.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나 매스컴에서 얻은 지식의 타당성을 같은 집단의 성원으로 이루어진 또래집단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2. 청소년기의 또래관계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오면서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은 또래관계의 확장이다. 이들은 이제 부모 형제를 비롯한 가족의 영향과,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장면에서 어른들로부터 받는 일방적인 지도와 편달 그리고 사회적 영향에서 벗어나, 그들과 비슷한 연령과 상황에 처해 있는 또래들과 어울리고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으며 성장·발달해 간다. 청소년기동안 친구를 사귀고 또래집단의 일원이 되어 사회적 관계를 발달시키고 효과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것은 독립적이며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꼭 필요하다. 또래끼리는 사고를 평등하게 교환하고 자신의 견해가 납득되고 존중되는 상황을 잘 만들어 내며, 이러한 평등성과 상호적인 존중에 의한 갈등해소의 성숙한 접근은 사회적 기능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고 비정상적인 행동보다는 건설적인 사회화를 발달시키는데 더 기여한다(Hartup, 1982)고 한다.

청소년들은 학교활동이나 가족활동으로 보내는 시간보다 또래규범에 순응하고 또래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상당히 강한 또래압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Brown, 1982). 그러나 약물을 복용하거나 성관계를 갖도록 조장하는 친구들의 압력은 다른 생활의 영역에서 받는 압력보다 훨씬 낮으며,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친구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자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말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들은 반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조장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기의 또래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은 공격적 행동의 조절, 인지적 사회적 기능의 발달, 도덕적 판단과 사회적 가치의 발달(French & Tyne, 1982 ; Hartup, 1983)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중요한 도움을 준다.

이러한 또래관계는 연령증가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지는데 청소년 초기(11세~13세)에는 친구간의 상호작용, 깊은 감정 등은 아직 생기지 않고 오히려 무엇인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관념이 강하여 단순한 활동 *activity*에 중점을 두고 친구관계가 형성된다. 청소년 중기(14세~16세)에는 서로간에 안정-충실성 *security-loyalty*에 바탕을 두고 서로 버림받거나 배반당하기 않는 신뢰성이 중심주제가 된다. 그것은 이 시기에 꼭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친구를 통하여 자기자신을 비춰보고, 또 자신이 가진 감정·비밀

등을 은밀히 털어놓을 대상으로서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후기(17세 이상)에 와서는 친구관계가 상당히 긴장이 이완된 상태로 굳어져 이제 서로간에 버림받을 위험성과 불안은 중요하지 않고, 개인의 성격과 흥미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윤진, 1992)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1994년 3월 7일에서 3월 12일까지 서울YMCA 청소년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12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근거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고 1994년 3월 29일에서 4월 23일까지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또래집단에의 지향과 동조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때인 청소년중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2학년(만 15세~16세)으로 제한하여 연령에 따른 제 요인들을 통제하였다. 조사대상학교는 서울시내 위치한 남·녀 고등학교로서 여학교가 4개교, 남학교가 5개교, 남녀공학이 1개교로 총 10개교가 설문조사에 응해주었다. 각각의 학교에 100부~150부의 설문지를 보냈으며 이중 수거된 설문지 1,316부에서 불성실한 응답자와 잘못 표집된 1학년생을 제외한 1,141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2. 조사도구 및 설문내용

조사도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하였고, 실제 문항수는 총 10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할 내용만을 간추려 설문영역을 재구성하였다. 재구성한 설문영역과 내용을 보면 총 문항수는 70개이며 영역은 크게 7개로 나누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친구망에 관한 항목으로 총 6문항으로 되어 있다. 둘째는 친구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친밀감에 대한 문항 10개, 따돌림, 이질감 또는 적대감을 느낀 경험에 대한 문항 3개, 친구관계유지정도, 친구관계의 만족도,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 전화통화빈도, 친구와의 대화내용에 대한 문항이 각각 1개, 친구와 함께 하는 활동내용에 대한 문항 15개 등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는 친구특성에 관한 것으로 총 6문항으로 되어 있다. 넷째는 이성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총 6문항이다. 다섯째는 또래친구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으로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섯째는 친구와의 도움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2문항은 기술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통계분석에서는 제외된 문항이다. 여섯째는 개인적 배경 및 특성에 대한 질문으로 성별, 학교성적, 비행경험, 가출경험, 가정생활수준, 학교생활 만족도 등에 대한 질문이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성별과 학교성적을 독립변수로 하여 교차분석을 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 비율은 남학생 649명(56.9%) 여학생 492명(43.2%)이며, 이들은 자신의 가정생활수준을 중간(63.0%) 또는 그 이상(26.6%)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성 별		학교생활만족도		가정생활수준	학교성적		가출 및 비행경험		
구 분	빈 도	구 분	빈 도	구 분	생활수준	학교성적	구 분	가 출	비 행
남자	649	아주만족	52(4.6)	상	38(3.3)	147(12.9)	없 다	1003(88.3)	553(48.7)
	(56.9)	만 족	463(40.9)	중상	266(23.3)	344(30.1)	두세번	86(7.6)	363(32.0)
		보 통	439(38.8)	중간	719(63.0)	398(34.9)	여러번	24(2.1)	150(13.2)
여자	492	불 만 족	124(11.0)	중하	90(7.9)	157(13.8)	많 다	23(2.0)	70(6.2)
	(43.2)	아주불만족	54(4.8)	하	19(1.7)	65(5.7)			

* 무응답은 Missing Cases로 처리되었으며 ( )안은 Valid Percent임.

의 학교 성적은 '중상'(30.1%), '중간'(34.9%)에 집중된 성향을 보이고 '중하'(13.8%)와 '하'(5.7%)의 빈도는 적게 나왔는데 이는 하위권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성적을 정확히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성향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가출경험은 11.7%가 있다고 응답하여 기존의 조사결과(서울 YMCA 가출설문조사, 1992)와 비슷하게 나타났고, 비행행동을 해 본 경험이 있다는 경우는 51.3%로 응답하여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비행경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의 비행내용은 대개 사소한 지위비행이라고 여겨지며 이는 청소년에 대한 지나치게 많은 규칙이나 규제로 인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비행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게끔 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청소년들의 친구망

청소년시기에는 또래집단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 그리고 특히 한명 또는 그 이상의 가까운 친구를 갖는 것이 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준다. J.Horrocks는 청소년 또래집단을 단짝 *chums or peers*, 끼리끼리 *cliques*, 패 *crowd*, 패거리 *gang* 등으로 나누고 있는데 단짝에서 패거리로 갈수록 어울리는 친구 수는 2명에서 7~8명까지 늘어나지만 그 친밀도는 떨어진다고 한다(이용교, 1992).

조사대상자의 친한 정도에 따른 친구망의 크기를 보면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 수는 한두 명이 63.1%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정도로 친한 친구의 경우는 10명 이상이 33.5%로 가장 많았고, 5명~7명이 그 다음으로 많은 27.8%로 였다. 그냥 알고 지내는 친구의 경우는 대다수의 경우(79.5%)가 10명 이상이라고 응답하였고, 주로 함께 어울려 다니는 친구의 수는 3-4명(62.0%)이 가장 많았다.

청소년의 친구관계망은 학교성적에 따른 차이는 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가 한두명이 73.0%로 대다수인데 비해 남학생은 한두명 55.5%, 서너명 23.9%으로 응답하여 친구 사귀는 경향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단짝 친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정도로 친한 친구의 경우도 남학생은 10명 이상(37.6%)이 가장 많은데 비해 여학생의 경우는 다섯명~일곱명(29.2%)이 가장 많아 친구수에 있어서 남학생이 더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울리는 친구의 수도 남녀 모두 서너 명이

〈표 2〉 청소년의 친구관계망

친한 정도	없다		한두명		서너명		5~7명		8~10명		열명이상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마음 터놓고 지내는 친구	8.3	5.5	55.5	73.0	23.9	16.6	7.6	3.7	2.6	1.0	2.2	0.2
보통정도로 한 친구			3.6	2.3	15.1	21.6	26.8	29.2	16.8	19.1	37.6	27.9
그냥알고 지내는 친구			2.5	0.4	8.1	4.7	6.8	3.5	7.5	6.0	75.2	85.4
보통몇명정도 함께어울리나	5.7	1.6	14.5	20.3	59.9	65.0	15.7	12.1	2.8	.8	1.4	.2

*무응답은 Missing Cases로 처리되었으며 Percent는 Valid Percent임.

가장 많았으나 단 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20.3%)이 남학생(14.5%)에 비해 높게 나타나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수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응답 결과를 볼 때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단짝 또는 끼리끼리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친구의 수가 단짝, 또는 끼리끼리로 갈수록 친밀도가 더 높다고 하는 것과 관련지어 볼 때, 선행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구를 사귀는데 있어 어려움을 더욱 느끼고 있으나 친구관계에 있어서 질적 수준에 더 가치를 두고(Berndt, 1981; Bigelow and Lagaipa, 1975) 있으며 친밀도 및 애착수준이 더 높다(백화정, 1989; Claes, 1992)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3. 청소년 친구집단의 특성

청소년에게 있어서 친구들의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성격(58.2%)으로 나왔으며 재미(유머)있는 것(58.5%)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의리 있는 경우(39.7%), 동네가 같거나(34.4%), 취미가 같은 경우(25.2%)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친구와 함께 어울리는 이유와 동료에게 인기있는 친구의 특성과도 관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 함께 어울리는 이유에서 성격이 잘 맞아서가 49.1%,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어서가 25.7%로 나타났으며, 동료에게 인기 있는 친구의 특성에서도 성격이 좋은 경우가 61.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유머가 있는 경우(24.5%)로 나타났다.

친구의 특성은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공부, 동네, 성격, 종교, 경제수준, 특성 없음에서는 여학생의 응답율이 남학생에 비해 높았으며, 그외 취미, 운동, 싸움, 의리, 노는 친구 등에선 남학생의 응답율이 다소 높았고, 재미의 경우는 남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지역적, 경제적, 학업 성적 등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신체적, 심리적, 유희적 특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학교

〈표 3〉 친구의 특성

N=1,141

친구들의 특성	합 계	학교성적별			성 별	
	실수(%)	상	중	하	남자	여자
재미가 있다	668(58.5)	59.2	57.5	63.1	58.2	59.1
성격이 비슷하다	664(58.2)	54.4	59.7	46.2	51.6	67.1
의리가 있다	453(39.7)	34.0	40.6	43.1	41.9	36.6
동네가 같다	393(34.4)	31.3	35.2	30.8	31.1	39.1
취미가 같다	287(25.2)	29.9	25.1	16.9	29.3	19.8
공부를 잘한다	236(20.7)	38.8	17.9	12.3	17.9	24.3
사는게 비슷하다	183(16.0)	19.0	15.7	12.3	13.6	19.4
운동을 잘한다	165(14.5)	18.4	13.3	24.6	23.4	2.7
종교가 같다	148(13.0)	10.9	12.8	13.8	11.2	15.3
별특성이 없다	137(12.0)	10.2	12.3	9.2	10.0	14.7
노는친구들이다	126(11.0)	8.2	10.3	29.2	14.9	5.9
싸움을 잘한다	63(5.5)	2.7	5.7	12.3	8.5	1.6

*무응답은 Missing Cases로 처리되었으며 ( )안은 Valid Percent임.

성적에 따른 차이에서 보면 다른 항목간에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공부와 사는 수준에는 상위권학생이 중·하위권학생보다, 의리, 싸움, 노는 친구에는 하위권학생이 상·중위권학생 보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아 학교의 성적이 또래집단의 특성을 결정짓는데 다소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4. 청소년의 친구관계

청소년의 친구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대체로 청소년이 친구와 얼마나 자주 전화를 하고, 만나서 하는 대화나 활동내용은 무엇이며, 친구와의 친밀감은 어느 정도인지 또는 그 속에서의 역동은 어떤 것인지 등 청소년의 내적인 역동과 외적인 행태나 양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청소년 친구관계의 내적인 역동을 알아보기 위해 친구와의 친밀감, 따돌림 당한 경험 및 또래에게 적대감이나 이질감을 느낀 경험, 친구관계 유지정도 및 친구관계 만족도 등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외적인 행태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과 전화통화의 빈도, 친구와의 대화내용, 친구와의 묘임, 친구와의 활동내용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1) 친구와의 친밀감

친구와의 친밀감은 청소년들이 친구와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친구에 대한 친밀도, 친구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친구를 필요에 의해서 사귀는 정도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응답내용을 보면 친구에 대한 친밀도에서 친구를 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86.7%, 평생동안 친구가 되고 싶다가 87.6%, 친구를 좋아한다 88.7%, 서로 친하다고 생각한다 79.7%가 확실히 그렇다 또는 대체로 그렇다에 응답하여 청소년들이

〈표 4〉 친구에 대한 친밀감, 신뢰감, 필요성

N=1,141

구분	응 답 내 용	확실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확실히 그렇지 않다
친밀도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다	34.0	52.6	12.8	0.9	0.7
	친구들과 평생동안 친구가 되고 싶다	52.6	35.0	9.9	1.8	0.6
	나는 친구들을 매우 좋아한다	47.2	41.5	10.0	0.7	0.5
	나의 친구들과 서로 친하다고 생각한다	31.5	48.3	16.4	2.7	1.1
신뢰도	나는 친구들을 신뢰할 수 있다	36.0	46.4	14.5	2.3	0.8
	내고민을 타인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34.2	39.6	16.7	7.4	2.1
	내가 도움을 청하면 도와줄 것이다	35.4	44.6	15.1	3.0	1.9
필요성	우정보다 필요때문에 만난다	1.6	7.6	12.7	44.0	34.0
	시간을 보내기 위해 친구를 만난다	1.5	10.9	23.0	35.8	28.8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만난다	0.7	3.3	10.5	32.5	53.1

*무응답은 Missing Cases로 처리되었으며 백분율은 Valid Percent임.

친구에 대한 친밀감이 대체로 높은편으로 나타났다. 친구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는 친밀도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친구를 신뢰할 수 있다 82.4%, 내고민을 타인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73.8%, 도움을 청하면 도와줄 것이다 79.9%가 확실히 그렇다 또는 대체로 그렇다에 응답하였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친구를 필요성 때문에 만나는 경우는 매우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우정보다는 필요 때문에 만난다 9.2%, 시간을 보내기 위해 친구를 만난다 12.4%,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만난다 4.0%가 그런편이라고 응답하여 청소년들의 친구관계가 필요에 의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교성적에 따른 교차분석을 보면 성별의 경우 전체적으로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친밀도가 약간 높았으며, 신뢰도의 경우도 여학생의 경우가 조금 더 높았고, 친구를 필요에 의해 만나는 경우는 남학생이 다소 많았다. 이는 여자는 남자보다 친구관계의 질적 측면에 가치를 두고 여기에 투자하

도움으로 보이는 항목 즉 이유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도와준 경험, 가출한 친구 재워준 경험의 경우는 남학생이 많았다. 학교성적별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단지 공부를 도와준 경험에서 상위권학생(86.9%)이 하위권학생(29.1%)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괴롭힘 당하는 친구 도움, 경제적 도움, 따돌림 당하는 친구 위로하기는 하위권학생이 다소 높았고 집나온 친구 재워주기는 하위권학생(40.0%)이 상위권학생(5.4%)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특이한 항목은 집나온 친구를 재워준 경험이 하위권학생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것은 하위권학생의 친구들이 가출한 경험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도 추측해 볼 수 있다.

V. 제 언

청소년에게 친구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은 가정이라는 테두리에서 사회로 관계망을 넓혀나가는 시기로써 친구와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사회의 적응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청소년을 이해하는데 있어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거기서 파생되는 행동성향과 유형 즉 또래문화를 파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또래문화가 비교적 건강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또래문화가 건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되도록 하기위해서는 또래문화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시각을 없애고 또래문화의 긍정적 측면을 지지하고 격려해주며 이러한 바탕위에서 청소년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청소년 자신이 청소년문화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정책에 있어서 청소년 스스로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보다는 이미 짜여져 있는 규정이나 틀에 적응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로서, 창조적인 청소년문화 형성의 주체가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서로 도우며 성장하는 생활협동의 청소년 또래문화를 형성해 나간다.

서로 도우며 성장하는 생활협동의 청소년 또래문화의 형성은 '청소년의 친구들 형성'(상호지지, 적절한 의뢰활동, 청소년 또래상담자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청소년들이 경쟁의 문화에서 서로 지지하고 서로 협동하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의 상황과 욕구에 맞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한다. 청소년 또래상담자 프로그램은 기초적인 상담과 의사소통 기술을 이해하고 습득함으로써 또래들간의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심층적인 자기이해를 통해 자아기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기자신과 자기 또래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청소년이 청소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적 입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2. 서로 도우며 성장하는 생활협동의 청소년 또래문화 형성을 위해 기성사회의 청소년 문화에 대한 선입관을 극복하고 청소년 사회와 기성사회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도록 하며,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과정에 청소년집단이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보호 및 통제의 청소년 정책과 문제 중심의 청소년 대책 수준을 넘어서서 청소년의 자발성과

창의성, 청소년문화의 자생성을 육성하는데 기성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이른바 문제청소년을 격리해서 보는 시각과 가족이기주의에 기반해 청소년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극복하고 건강한 가족문화의 형성과 지역공동체에 형성 차원에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을 갖도록 지원한다.

3.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형성해 나간다.

최근 교육부문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방안은 창의성, 정보생산성의 추구를 위해 단순주입식의 교육체제를 개혁해 나가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열린교육의 추구, 열린학교의 추구, 독서운동의 활성화, 탐구 및 참여학습 등의 흐름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학교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적정한 학생수의 확보 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학교에서의 특별활동의 활성화, 청소년문화활동 지도를 위한 교사의 전문성 확보 등의 과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새로운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청소년 단체의 지원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4. 청소년을 작은 청소년 문화공간의 확산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해 청소년활동을 지원한다.

현재 청소년 문화공간은 매우 부족하며 청소년이 주인이 되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 청소년들이 그들의 관심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짜여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문화공간으로는 솟아오르는 욕구를 충분히 해소할 수 없으며 자신들의 문화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이 스스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용공간의 규모는 소규모로 청소년이 많은 지역에 점차 확산되는 것과, 시설의 인력은 시설관리자로 국한하고 이용과 프로그램 준비와 운영은 대체로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지역의 소규모 공간, 종교사회단체 등의 공간 활용방안, 기존시설 이용의 수월성 등도 과제로 제시된다. 사회단체의 다양한 프로그램 모델을 학교, 교회,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에 제공한다.

5. 청소년 자원봉사운동을 활성화한다.

시민사회의 공공성의 확보는 모두가 더불어 사는 책임 있는 민주사회의 형성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기성사회에서 자원성 *voluntarism*의 확보는 부정부패와 부조리의 형성을 저지할 수 있는 커다란 힘이며, 청소년사회 또한 친구와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하는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청소년시기의 자원봉사활동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신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들이 사회나 타인에 대한 관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으며, 그들이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매우 미비하여 다소 경직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과 연결망을 형성하여 청소년 자원활동을 돕는다. 농촌봉사활동, 도시봉사활동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으며, 최근 사회단체와 학교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자원봉사자운동의 모색등이 시도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B. Kandel & S. Lesser 지음, 권이종 역.1991. 「청소년세계의 이해」, 교보문고.

이용교.1993. "사회집단과 청소년문화",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문화론」, 한국청소년개발원.

백경임 서동인.1993.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친구관계", 「한국청소년연구」 제15호, 한국청소년개발원.

민무숙.1993. "고교생 또래문화의 지역간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3호, 한국청소년개발원 pp. 31~46

윤 진.1993. "청소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방향", 청소년학연구 제1권, 한국청소년학회, p. 21.

정재걸.1992. "한국교육의 종합이해와 미래구상(Ⅲ)" ,학생들의 삶과 문화편, 한국교육개발원 pp. 58

백화정.1989. "친구 지각에 관한 일 연구: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이용교.1992. "대학생의 친구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8호, 한국청소년연구원, pp. 52~64.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5.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의식」.

John C. Coleman & Leo Hendry 지음, 남승희 편역.1993. 「청소년은 누구인가」, 서원, pp. 123~153.

Berndt, T.J.1982. The Features and Effects of Friendships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 pp. 1447~1460.

Bigelow, B.J. & LaGaipa, J.J.1975. Children's Written Descriptions of Friendship:A Multidimension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1, 857~858.

Damon, W.1983.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Y.:W.W.Norton &Company, Inc.

Claes, M. E.1992. Friendship and Personal Adjustment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15, 30~55.

Youniss, J. and Smollar, J.(1985). *Adolescent Realations With Mothers, Fathers and Friends*, Chicago:University of Chicago Press.).

Lloyd, M. A.1985. *Adolescence*. N.Y.: Harper & Low Publishers.

Brown, B.,Eicher,S.,& Petrie, S.1986. The Importance of Peer Group("crowd") Affiliation in Adolesence. *Journal of Adolescence*, 9, 73~96.

Ginsberg, D.,Gottman, J. & Parker, J.1986. The Importance of friendship. In J.M. Gottman & J.G.Parker(Eds.), Cambridge University of Press.